



##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

North Koreans' Border Crossing and North Korea–China Borderland : 'Sensed Place' and the 'Gendered' Sense of Place

---

저자 (Authors) 김성경  
Sung Kyung Kim

출처 (Source) [한국사회학 47\(1\)](#), 2013.2, 221–253 (34 pag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1\)](#), 2013.2, 221–253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회학회](#)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99635>

APA Style 김성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한국사회학, 47(1), 221–253.

이용정보 (Accessed) 경남대학교  
203.253.173.\*\*\*  
2016/08/10 01:4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연구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

김성경\*\*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월경을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이동과 북·중 경계지역의 다층적 관계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경을 감행한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경계지역 출신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들에게 있어 북·중 경계지역은 국경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들)으로 작동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경계지역 북한주민은 북·중 경계지역을 관통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그들만의 장소 감각을 구축하여 이 지역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장소'로 실천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은 신체를 통해 북·중 경계지역을 감각하였고, 이를 통해 구축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장소 감각은 이들의 대량 탈북의 동인이 되기도 하고, 이후 이들이 불법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경계지역에 정주하게 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장소로의 북·중 경계지역은 행위주체에 따라 다르게 감각되기도 하는데 특히 탈북여성은 불법적인 신분과 더불어 '여성'으로의 불평등한 공간의 배열과 젠더화된 장소 감각을 구축하게 된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의 다층적 관계를 감각하는 '장소'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추동했던 경계지역의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공간을 수많은 일상의 공간(들)로 이루어진 변화와 과정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다시 살려볼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북·중 경계지역, 장소, 장소 감각, 현상학, 젠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05).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bible0729@gmail.com)

## I. 들어가며

북한이탈주민의 본격적인 이주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극심한 식량난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이보다 몇 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수가 약 2만여 명을 훌쩍 넘겼다(통일부, 2012). 갑작스런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한국 사회로의 정착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정치·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잔존하는 냉전이데올로기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디어에서 그려내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경로와 경험은 극한의 굶주림과 폭압적인 정권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국경을 넘은 피해자(victim)자로 다소 단순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sup>1)</sup>는 북한주민의 월경을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압된 이주로 암묵적으로 정의해왔고, 북한이탈주민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거나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의 희생자로 위치되어 왔다(윤인진, 2009; 정주신, 2001; 김수암, 2006; Aldrich, 2011). 물론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이주 동인과 특수성에 대한 그 나름의 효과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박제화하고, 이주의 동인을 경제위기나 정치적 억압과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에서만 찾아 행위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한편, 최근의 이희영, 유해숙 등의 연구<sup>2)</sup>

1) 탈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이탈주민관련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문제에 깊이 천착해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 정병호 외(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정신의학적 시각으로 정착의 문제를 다룬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과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을 7년에 걸친 패널 연구로 살펴본 전우택(2010) 『통일 실험, 그 7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 등이 있다. 위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통합과 공존이라는 관점으로 심도 있게 연구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동인과 과정을 공간과 생활세계라는 층위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과정을 다룬 연구는 주로 국내의 인권단체와 NGO의 보고서(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의 문제를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의미와 연계하여 학술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기존 연구에서는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구성의 문제를 인정투쟁과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으로 살펴본 두 개의 논문 이희영(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과 유해숙(2009) “새터민의 무력감의 원인과 임파워먼트 전략”, 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게 되는 젠더적 불평등과 근대성의문제를 ‘민족화된 시민권(ethnicized citizenship)’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한 Choo(2006)

는 북한이탈주민의 행위주체성과 정체성의 재구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정착의 과정에서 들어나는 행위주체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동의 과정에서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행위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주의 동학을 규명하여, 이들의 이주의 동인과 경험이 사회 구조와 행위주체의 관계성 내에서 복잡하게 (재)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틀에서 쉽게 규명되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 즉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위기 시 중국의 경계지역으로 월경한 후 단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점, 경계지역 출신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조선족 커뮤니티와 교류를 해온 함경북도 지역의 주민이 주로 월경을 반복하거나 중국으로 이주하였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의 이주보다는 중국에 정주하고 있다는 점 등에 천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을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과 공간의 문화적 자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김성경, 2012). 즉,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근원적인 요인으로의 ‘문화’적 영향을 주목한다. 특히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오랫동안 역사·문화적으로 구축되어온 특수한 ‘공간’이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이주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문화적 동인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적 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중국내 위협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중 경계지역에 정주하는 이유는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주요한 ‘장소’로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 실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북·중 경계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 권력의 중심부와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변방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두 국가의 공식적 관계나 영토로 분할되는 ‘공식적’ 경계가 일상의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문화와 언어를 공유했던 경계지역의 정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이 지역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고 교류해왔다. 북·중 경계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많은 수의 북한주민에게는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은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장(場)이었고, 이들은 경제난이 가중되었을 때 자연스레 자신들의 생활세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계지역의 북한주민이 국가내의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등이 있다.

로컬에서 극복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중국까지 확장된 공간 내 이동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은 이들의 생활세계가 국경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이들의 경험과 현상학<sup>3)</sup>적 인식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는 중국에 남아 있는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주와 경계지역 출신의 월경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북한을 끊임없는 교류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spaces of flow)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교류는 공식적이고 국가적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일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은 중국/러시아와 강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에서 외부 세계와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된 이들의 생활 세계는 이들이 경제난을 겪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동하였음을 밝히겠다. 특히 본 연구는 북·중 경계지역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문화적 배경이 된 공간으로 주목하면서 이 지역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절대적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지는 '장소'가 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최근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 뿐 아니라 질적연구방법이 활발하게

3) 현상학은 훗설(Husserl, 1859~1939)의 철학에서 근간을 두고 슈어츠(Schutz, A.)에 의해 사회학에 큰 영향을 준 철학적 이론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현상은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세계 심연에 존재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 자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상 자체는 여기에 있으며, 동시에 없고,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오해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현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일 뿐이고, 훗설은 '판단중지(bracketing)와 환원(reduction)'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현상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훗설의 이론을 사회학적으로 발전시킨 슈어츠는 각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식의 창고(stock of knowledge)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지식과 인식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일상의 지식이 타인에게도 통용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슈어츠는 각 개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인지되는지를 분석하여 인간이 의식 속에 있는 현상과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당연하게 여기는 공간의 의미와 인식이 경계지역을 경험하지 못한 타인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시각과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현상학자 메를로-퐁티(Merleau-Ponty)가 주장하는 신체를 통해 지각되는 세계라는 개념은 신체가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활용되고 있다(이희영, 2010; 조정아 외, 2008 & 2010; 김귀옥 외, 2000). 심층면접이나 생애사 분석의 경우 이주자들의 삶의 경험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접대상자와 면접자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남·북한 대치 상황과 잔존하는 냉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들의 이주 경험이 극한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 때문에 면접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데 소극적일 뿐 아니라 면접대상자와 면접자 사이의 적절한 신뢰감(rapport)을 형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경기도의 하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착 도우미 프로그램의 정착 도우미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만난 북한이탈주민을 에쓰노그래피(ethnography)를 통해 관찰하고 면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자는 총 두 가족의 정착도우미로 한 달에 1-2회, 많게는 일주일에 1회씩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신뢰를 구축하였고, 두 가족의 하나원 동기와 지인을 '눈덩이' 표집으로 모집하여 심층면접 하였다. 심층면접의 사례의 경우 일회성 인터뷰가 아닌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후에 2~3차례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주 경험을 진솔하게 함으로써 이동의 과정에서의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실천을 포착하려 하였다. 심층면접의 경우에는 모든 면접내용을 녹음하였으나 관찰하고 있는 두 가족은 그 내용과 양이 방대하여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였고, 이 경우 만남 이후에 작성한 연구자의 필드노트와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증언을 전언으로 명시하여 논문에 포함하였다. 덧붙여 연구자는 2011년 6월과 2012년 8월에 북·중 경계지역의 현지조사(field research)를 진행하였다. 북·중 경계지역에서 정주하고 있는 북한여성을 인터뷰하는 것은 이들의 신변노출과 안전상의 이유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총 4명의 북한여성을 인터뷰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연구자는 북·중 경계지역 내 탈북자의 상황을 좀 더 알기 위해 이들을 오랫동안 도와온 종교계 관련자(한국인과 조선족)와 인권활동가, 한국인과 조선족 사업가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sup>4)</sup>

4) 한국인 선교사 2인, 조선족 선교사 3인, 조선족 사업가 1인, 한국인 사업가 1인, 인권활동가 2인을 심층 인터뷰 하였다.

〈표 1〉 본 조사 응답자 기본정보(탈북자)

	성별	나이	입국년도	중국 체류기간	출신지역	중국에서 직업
A	남	28	2007	11년	함경북도	웨이터, 구두닦이, 구걸, 밀수, 장사, 농촌 노동
B	남	30	2004	5년	함경북도	밀수, 장사, 구걸, 노동
C	여	47	2009	7년	함경북도	병간호, 장사 (친척도움)
D	남	30	2002	1년	함경북도	성경공부
E	남	47	2004	10년	함경북도	밀수, 장사, 노동
F	여	24	2009	5년	함경북도	학생 (친척도움)
G	여	28	2012	5년	함경북도	친인척 병간호, 골동품 밀수
H	남	30	2004	9년	함경북도	구걸, 구두닦이, 노동
I	남	42	2011	6개월	함경북도	밀수(마약), 장사
J	여	38	2011	8개월	함경북도	
K	여	55	중국 거주	99년부터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L	여	30	2011	7년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M	여	40	2011	7년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N	여	41	2011	10년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O	여	40	2011	3년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P	여	41	2011	3년	함경북도	장사, 노동
Q	남	57	2011	5년	함경북도	장사, 밀수
R	남	30	2011		평양	브로커 통해 바로 입국
S	여	24	2011	2년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최근 네덜란드로 이주)
T	남	28	2011		평양	브로커 통해 바로 입국
U	여	44	2011	9년	함경북도	식당 노동 및 결혼
V	남	54	1996	-	평양	남한의 친척의 도움으로 바로 남한 입국
W	여	42	중국거주	2000년부터	함경남도	한족과 결혼, 이후 청소 및 보모
X	여	39	중국거주	2000년부터	함경북도	조선족과 결혼, 교회에서 사역활동
Y	여	71	중국거주	2009년부터	함경북도	조선족과 사실혼 관계
Z	여	41	2004	7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이주 후 중국으로 결혼이주, 식당 노동

에쓰노그라피는 절대적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찰대상자의 삶, 행동양식, 경험과 기억을 심층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북·중 경계지역의 관계를 현상학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에쓰노그라피를 통해 축적한 자료와 필드노트는 이들의 이동을 추동한 ‘감각’하는 ‘장소’로서의 북·중 경계지역의 의미와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관찰하고 면접한 북한이탈주민은 때때로 이주의 과정에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특히 중국 공안이나 북한 정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언급 하였다. 북한여성의 경우 중국에서의 삶을 이야기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도 하였고, 면접자에게 어느 정도 신뢰감을 느낀 이후에 초기 인터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고백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연구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에쓰노그라피와 이에 바탕을 둔 심층인터뷰는 여러 층위에서 숨겨져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동의 다층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 3. 북·중 경계지역: ‘일상의 공간(들)’ 혹은 ‘장소’

세계화 시대에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려는 다양한 시도는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최근 사회학에서 본격화되고 있다(하비, 1985). 특히 오랜 시간동안 절대적이면서 균질하다고만 정의되었던 공간은 다양한 층위로 구분되거나 “상대적인 공간”으로 분화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공간내의 역동적 역학관계에 따라 다른 성격을 내포한 “관계적 공간”으로 재위치 되기도 한다(Agnew, 2011: 8-10; 하비, 2005/2008: 189-206).

소자(Soja)는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공간과 사회적 공간을 구분하면서 사회적 공간은 “사회행위의 중매자이며 또한 사회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물이다”라고 정의하는데(Soja, 1985: 92; 김왕배, 2011: 41에서 재인용), 여기서 물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은 같은 지정학적 영역에 위치될 수 있지만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사람, 조직, 혹은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실천되고, 소비되고, 생산되는 공간이다(Lefebvre, 1997; 하비, 2005/2008). 하비의 경우 경제의 흐름(economic flows)에 따라 공간이 재배열되고 각 주체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에 주목하기도 하고, 르페브르의 경우에는 경제의 흐름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개념적 공간(abstract

space)이 공간 실천(spatial practices)이나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을 통해 일상을 식민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일상의 공간(들)(spaces of everyday life)을 재확립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하비, 2005/2008; Lefebvre, 1991). 이들은 단일하고 균질한 지정학적 공간이 아닌 다원적이고 사회적인 공간(들)을 주목하면서 공간의 다층성을 전면화하였을 뿐 아니라 공간을 다양한 행위주체, 구조, 실천들이 결합하는 장(場)으로 개념화하여 공간(들)이 유동적이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의 개념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경계지역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특히 북·중 경계지역의 공간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경계지역 정주민들의 일상의 공간(들)이 행위 주체들의 사회적 삶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라는 맥락에서 경계지역이 갖는 함의를 이해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절대적이고 지리학적인 공간은 두 국가의 영토 및 지리적 특이성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경계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회적/관계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경계지역이라는 절대적 공간과는 구별되는 일상의 차원에서 생산, 소비, 작동하는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르페브르의 개념을 빌려온다면 경계지역의 일상의 공간들은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주어진’ 개념적 공간에서 소외된 행위주체들이 아래에서부터 만들어낸 ‘삶’의 공간이 된다(Lefebvre, 1991; Agnew, 2011: 18). 특히 북한의 독재정권의 힘이 작동하는 공간과는 구별되는 북한주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공간은 경계지역이라는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국의 조선족 커뮤니티와의 소통과 교류로 구성되는 공간이 되고, 이 공간은 국가와는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면서 행위 주체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최악의 경제위기는 국가 공간의 작동을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북한 정권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하에 각 지역별로 ‘자력갱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 북한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 점 등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애기밭이라고 불리는 개인 텃밭의 확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경제 활동의 증대, 중국에 살고 있는 친·인척 네트워크의 활성화, 보따리 장수 라고 불리는 밀수의 확대, 국가 권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뇌물과 인맥 등이 모두 일상의 차원에서 북한주민이라는 행위주체들이 만들어낸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들)은 북한주민이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역동성의 장이고, 경계지역 북한주민의 일상의 공간(들)은 중국 쪽 경계지역 정주민과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경 너머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sup>5)</sup>

르페브르의 경우 개념화된 공간과 일상의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행위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일상의 공간(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다른 몇몇의 학자들은 ‘공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위주체들이 경험하는 장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히 투안(Tuan)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간의 개념에서 행위주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장소는 공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행위주체가 상당시간을 걸쳐 의미화하고 실천하는 공간을 ‘장소’로 개념화 할 것을 제안한다(Tuan, 1974).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강화되는 다양한 모빌리티는 더 이상 행위주체가 경험하고 감각하는 ‘장소가 아닌 공간 재현과 이미지만이 넘쳐나는 “비장소적(place-less)” 혹은 “장소 상실”적 상황을 만들게 되고(앨프, 2005), 이로 인해 행위주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축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린 채 “사이버 공간을 헤매는 가상적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Harvey, 1996: 246). “비장소(place-less)”는 세계화시대에 곳곳에 산재되어 균질화된 동시대성을 나타내고 “사람이 생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공존하거나 혹은 공생하는 공간”을 뜻한다(Auge, 1994/2002: 246; 나오키, 2008: 297에서 재인용). 반면에 ‘장소’는 사람들이 접촉하고, 인식하고, 근접해 있고, 친밀하고, 익숙한 공간으로 그 장소의 행위주체들이 관계적이고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공간은 인간이 살지 않지만, ‘장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다(Casey, 1993: xiii). 글로벌 모빌리티가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위주체들이 경험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장소’, 각 행위주체들이 근접하게 얽혀있는 관계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장소’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은 놀랄 일이 아니다.

‘장소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마시(Massey)의 경우 장소의 특징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의 진실성(authenticity)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된 여러 관계들의 특정한 배치로 구축”되면서 미래의 변화에 가능성을 열어둔 공간으로 주장한다(1993: 41; 1999: 288). 특히 장소는 사회적 관계의 흐름(flows of social relations)으로 구성되고, 장소 감각(sense of place)은 특정 로컬

5) 최근 북·중 경계지역의 다층성과 다양한 주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본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단동에서 머물며 경계지역의 특성을 북한사람, 북한외교, 조선족, 그리고 한국사람 이렇게 4 그룹의 이동과 교류의 과정을 통해 연구한 강주원의 논문은 경계지역 특히 단동의 공간의 의미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다(강주원, 2012).

공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장소내의 행위주체들은 “웰빙(well-being), 혼란(confusion), 삶의 경험(living experience)” 등을 통해 장소 감각을 구축한다(Massey, 1999). 특히 마시는 지금까지 장소의 정의와는 구별되는 장소의 대안적 해석을 강조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장소는 고정불변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는 유동적인 흐름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고정된 공간이 아닌 변화 가능한 과정(processes)이다. 또한 장소는 경계(boundary)로 구분되어 내부와 외부로 나뉘지 않고 항상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는 단일하고 유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다양한 충돌과 이해관계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Massey, 1991). 이렇게 정의되는 장소의 대안적 해석은 장소를 구성하는 행위주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인식되는 장소 감각(sense of place)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가령 사회구조 내에서 소외된 주체들(여성, 어린이, 성적 소수자 등)은 각기 자신들 나름의 장소와 장소 감각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결코 고정되어 있거나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마시의 ‘장소’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는 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현재라는 기점에서 배열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흐름이라는 점이고, 이 관계의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글로벌 시대의 장소의 상실 혹은 시공간의 압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장소의 역사적 특이성 혹은 로컬리티의 복원에만 집중되어 왔던 장소 논의에서 벗어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시간의 연속선상의 장소의 역동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소는 과거의 단편적인 경험의 기억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포한 현재의 관계의 배열이고, 이 배열은 미래의 배경이 된다. 즉 장소는 특정 지역에 과거로부터 정주해온 지역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에 이주해온 이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관계들로 구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의 배열이 바로 미래의 장소의 시작점이 되면서 장소는 변화하는 흐름이자 과정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장소는 행위주체들이 시간성을 가로지르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의미화 함으로써 구체화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행위주체들은 공간을 신체들 통해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주체들이 특정한 공간에 “뿌리내리는 것(dwelling)”을 행하면서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하이데거, 1971; 나오키, 2008: 292-5). 장소가 위에서 언급했던 공간(들)과 특히 구별되는 지점은 장소는 행위주체들이 단순히 경험하는 공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감으로 접촉하고, 감각하며, 또한 경험하여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행위주체들과 좀 더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시의 장소의 대안적 해석은 ‘장소’를 전유하는 행위주체들 내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장소의 개념에 젠더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마시는 이주는 단순히 경제적·정치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문화적 자원에 의해서 다층적으로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마시는 젠더가 경제적·정치적 요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여성의 이주는 남성의 이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여성이 구성하는 장소와 장소 감각은 남성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마시는 영국의 킬번(Kilburn)이라는 탄광 도시의 예를 들면서 여성의 장소 감각은 남성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만남의 장소(the meeting places), 외부와의 관계망(network and connections outside), 일상의 이동 경로(the moves in everyday)” 등을 통해서 구축된다고 주장한다(Massey, 1994;1999). 즉 동일한 지형학적 ‘장소’는 그 공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주체에 따라 다층적으로 경험·접촉되고, 다르게 인지되면서 상반되는 장소 감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남성과는 구별되는 여성의 장소와 장소감각이 종종 불균등한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기 쉽고, 이는 젠더간의 불평등한 지리적 (재)구성으로 귀결되곤 한다는 점이다.

#### 4.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장소’

북한은 1990년대부터 조금씩 개방을 진행해왔는데, 1991년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1998년 금강산 관광, 2002년/2011년 신의주 경제특별구,<sup>6)</sup> 2003년 개성공업단지 등 “외부의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으로 북한 내에서 가장 변경지역인 4개의 모서리 지점”을 개방하였다(이옥희, 2011: 15). 금강산과 개성이 남한과의 교류가 중심인 개방지역이라면, 나진·선봉과 신의주는 북한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맞닿아 있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만약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감안하여 북한이 점차적인 개방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북쪽의 국경지역이 더 큰 폭으로 개방될 확률이 높다. 그 만큼 이 지역은 오랫동안 비/공식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를 해왔던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강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어 교류

6) 중국과 협상해왔던 신의주 경제특별구는 2002년에 무산되었다. 이후 북한의 핵문제와 중국내 국내문제 때문에 큰 진전이 없다가 2011년에 북한이 다시 신의주를 경제특별구로 선포하고 중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하고 있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북쪽 국경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경계이고 이는 1,376.5km에 달한다. 러시아와의 국경은 두만강 하구의 16.93km에 불과한데, 이 지역은 나진·선봉 지역과 러시아의 핫산 지역으로 국경을 두고 연결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64년 “국경지역에서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 중 상호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서 경계지역을 “두 나라가 인접하여 있는 시와 군, 현”으로 지정하였다(이옥희, 2011: 18). 이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신의주), 자강도(만포), 양강도(혜산), 함경북도(나선특별시, 회령)가 중국은 랴오닝성(단둥시), 지린성(연변조선족자치주, 백산시, 통화시)이 경계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함경북도의 무산, 회령, 온성 등의 지역과 두만강을 두고 맞닿아 있는 중국 쪽 지역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옌지, 투먼, 훈춘 등)가 위치해 있다.

경계지역(borderland)은 사회·지리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영토가 국경이라는 경계로 나뉘고 구분되는 지역이다(Takamura, 2004: 174-5; Vaughan-Williams, 2009). 근대 국가의 영역이 확고하였던 20세기 초반에는 국경이라는 상징적, 정치적, 지리학적 경계는 다름(difference)과 타자(the other)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되어 왔다. 즉 국경은 근대 국가의 영토가 제도화되거나 생산되는 것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근대의 산물이다(Newman · Passia, 1998). 구성된 국경은 때때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커뮤니티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경이’ ‘명백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경계’라는 믿음에 균열이 감지되기도 하고 지도상에 그려진 국경이 일상에서 통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Balibar, 1998). 즉 현실에서는 국경이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국가와 영토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경계선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호스트만(Horstmann)은 경계지역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을 구성하는 내러티브는 두 가지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국가와 국경이라는 정치적 주권이 작동하는 층위이고, 두 번째는 경계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다(Horstmann, 2002: 7). 국경으로 나뉜 경계지역은 각 국가와의 유사성이나 문화적 유대감보다 경계지역만의 특정한 지역·문화적 동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문에 두 국가가 국경을 중심으로 맞닿아 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공통의 사회공간이자, 경계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공통의 사람”들의 “공통의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Baud · van Schendel, 1997: 216; Brednikova · Voronkov, 2000). 또한 경계지역은 국가 내 타 지역보다는 외국인과 경계를 넘는 다양한 교류

와 행위주체들로 구성되는 지역이다(Wendle · Rosler, 1999: 8). 근대의 국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공통의 일상 공간을 만들어온 경계지역은 국경이라는 공식적인 분할이나 장벽과는 다른 차원의 경계지역의 커뮤니티를 지속해왔고, 특히 같은 민족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계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dwelling)’면 국경이라는 근대 영토의 경계와 또 다른 일상의 공간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북·중 경계지역 내 위와 같은 경계지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은 북한의 함경북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이르는 지역이다. 19세기 조선인들이 간도 지방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이 지역은 근대의 국경이 구축된 이후에도 조선족과 북한 주민이 혈연, 언어, 민족, 문화로 교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계지역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약 200 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은 경계지역에 집중적으로 집단 거주하고 있고,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힘입어 조선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두만강 이북으로 이주해온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함경북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함경북도 주민과는 혈연적 관계 및 일상적 교류를 계속해왔다(리홍국 외, 2010: 14).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7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수의 중국 조선족이 북한으로 넘어와 물건을 팔고 북한의 자연광물이나 식품을 구입해가는 방식으로 조선족과 북한 주민의 교류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자 많은 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성경, 2012). 즉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족과 함경북도 주민은 과거의 혈연을 바탕으로 이들만의 일상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는 동일 문화와 언어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동일문화·언어지대”로 안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경제 위기 시기에 많은 수의 북한 이탈주민이 감행한 월경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가를 등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이들과 조선족이 오랫동안 구축한 일상의 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성경, 2012).

특히 위에서 살펴본 ‘일상의 공간(들)’이나 ‘장소’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북·중 경계지역을 다시 살펴본다면 함경북도 주민이 경험하는 공간인 북·중 경계지역은 국가 내의 어떤 지역보다도 친밀감이 형성된 이들의 ‘장소’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북·중 경계지역을 오가면서 평생을 보낸 Y씨에게 경계지역은 친밀함과 익숙함의 장소이다. 나진에서 출생한 Y씨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품팔이 하는” 부모님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 한다.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보모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Y씨는 연변대 조선어문학과에서 수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다. 하지만 60년대 초반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조국으로 돌아오라”는 홍보를 하기도 하였고, 문화혁명 시기의 연길보다는 북한이 나올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이주를 감행한다. Y씨는 북한으로의 이주는 특별한 결심이나 경험이기 보다는 비슷한 환경으로의 이동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글쎄 내 땅(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조선 사람이니까 그저 조선이 고향이다 그리고 나갔지...그때 그저 그냥 그랬어. 부모님도 북에서 와서 여기서 산거니까. 여기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 조선사람 다 조선으로 나간다하니까 조선으로 나갔지. 생활은 별 차이 없었습니다. 여기랑(사례 Y씨 인터뷰).”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은 Y씨에게는 국경이나 상이한 환경(언어, 습관, 생활양식)으로 구분되는 곳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유사성, 친인척 관계 등의 다중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동하는 공간이자, 살아가는 장소이다. Y씨는 남편과 함께 북으로 갔지만 Y씨의 두명의 오빠들은 중국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경계지역에 정착하였고, 오빠들과의 계속된 교류는 Y씨가 중국 쪽 경계지역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친밀감과 중국에 정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2004년 보위부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망하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보다는 강을 건너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중국말도 그간에 조선에 가 있다가 그저 한 40년 만에 왔는데, 여기서 와서 좀 대상하니까 하나도 잊어 안먹고 술술 다 나오디다. 그런데 글 경우는 좀 까리까리하지뭐... 말은 그저 지금도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어쩔 그렇게 한쪽 같은가 합니다... 일 없습니다. 난 여기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입니다. 한어도 좀 하지 예전에 있던 곳이어서 다 알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영 고와하지...(사례 Y씨 인터뷰)”

40여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 연길은 많이 변해있었지만 곳곳에는 Y씨가 살았던 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고, 언어적 문제가 없는 Y씨에게는 연길이 낯선 공간이 아닌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로 감각되고 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것부터 연길 시내 곳곳을 걷는 것이 익숙한 Y씨는 그만큼 빠르게 장소감각을 구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연변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중국 정부에서 일을 한 중국 조선족이었다면 다시 돌아온 중국에서 Y씨는 불법적 신분을 갖고 돌봄 노동과 살기 위해 조선족과 동

거를 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Y씨가 장소감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은 조선족 노인과 살고 있는 사적 공간, 자신의 신분을 지켜줄 수 있는 극소수의 친인척 네트워크, 그리고 일상생활의 제한된 경로(시장, 병원, 약방 등)에 국한되어 있다. Y씨는 같은 공간인 연결지역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축을 가로 지르면서 유사하면서도 구분되는 ‘장소성’과 ‘장소감각’을 구축하고 있다.

##### 5.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신체를 통해 감각되는 ‘장소’

국가라는 공간과 구별되는 일상에서 경험되는 경계지역은 공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주체들이 신체를 통해 감각하는 ‘장소’로 확장되고 이는 북한주민의 대규모의 이동과 중국 쪽 경계지역내의 북한주민의 정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북·중 경계지역의 북한주민이 친밀하게 ‘감각’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시각이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일반적으로 공간의 현상학은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혹은 세계)을 어떤 의미와 본질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메를로-퐁티는 ‘감각’한다는 것의 의미의 풍부함을 경험주의의 수동적이면서도 일상적 수용과 거리를 두고 설명하면서, ‘감각’한다는 것은 곧 신체가 세계를 친숙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공간을 감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신체와의 관련을 포함”하며, 결국 “세계를 우리의 삶의 친숙한 환경으로 나타내는, 세계와의 생명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메를로-퐁티, 2002: 105).”

신체를 통해서 지각된 세계는 결국 인간이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임을 들어내는 것이고, 이는 선형적 의식(transcendental consciousness) 이전에 ‘신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체험적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경, 2009: 68). 이런 맥락에서 신체는 “자연적인 종(species)”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물리적으로 지각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인 개념”으로 구성되는 것이 된다(Merleau-Ponty, 1962; Butler, 1988: 520에서 재인용). 자아의 체험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기울였던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세계는 인간과 실존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살아있는 ‘역사적인’ 신체를 통해서만이 지각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라는 개념은 이성을 통한 사유를 통해 추상성(abstraction)과 보편성(universalism)을 지향한다면, 메를로-퐁티의 세계를 지각하는 것은 보편화가 불가능하고, 각 존재들의 시·공간과 지각 주체의 차이는 지각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데퐁브, 1990: 78-83). 이 때문에 각각의 “세계 및 타자와 연루되어” 있는 인간은 존재의 “애매성”을 피할 수 없다(테브나즈, 2011: 97). 초월적 자아와 통일된 실존이 아닌 인간의 지각의 층위에서 혼란과 애매함이 뒤섞여 있음은 바로 인간이 역사와 결부되어 있고 경험 속에 연루되어 존재함을 들어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테브나즈, 2011: 98-101).

신체가 감각하는 세계는 특정 공간과 시간성 아래 역사적으로 지각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자연적 의미로의 신체 감각은 항상 문화적 의미의 틀에서 해석 되어야 한다(Merleau-Ponty, 1962: 146). 우리가 감각하는(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고, 색을 구분하고, 습관이나 생활방식을 실천하는 등등) 공간이 바로 행위주체들이 지각하는 세계이면서, 이들이 세계 안에 존재(being-in-the world)로 인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절대적 공간으로부터 행위주체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체는 중심에 위치될 뿐 아니라 아비투스(being-in-the world)의 장이다. 신체는 장소를 의미 있는 통일된 전체(coherent entity)로 구성해내고, 이 과정에서 장소의 시·공간성은 몸을 통해 체화된다(Casey, 1997: 716-8).

대다수의 변경지역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감각하여 지각하는 세계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국경너머 조선족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는 일상에서 작동하는 세계이고, 이 세계는 이들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들)’이나 ‘장소’가 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때 변경지역 거주민들은 북한 내 이동이나 지역에 정주하면서 위기 타개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껏 지각해온 세계에서는 생각해 내기 힘든 것이었고, 자신들이 지각하는 세계에서 가능했던 방안 중에 하나인 중국으로 넘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내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경북도의 경우 지리학적으로 압록강보다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빠르지 않아 조선족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고, 백두산 자락이 완만해지는 지역이어서 산새가 험하지 않아 거주민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상당기간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를 하거나, 조선족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물건을 교환하거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두만강에서 조선족과 수영을 한다든지.<sup>7)</sup> 조

7) 인터뷰 사례 A씨는 96년 12살의 나이로 처음 월경을 시작하였다. ‘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매일 손찌검하고 그래서, 예뵈 그냥 나왔어요.[...] 엄마가 잘 때 새벽 2시에 바로 강 넘었지. 그 전에는 중국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많이 놀았지요. 두만강이니까 수영하러 나가면 조선족 애들이랑 수영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물건도 주고 받고 그랬거든요....’(인터뷰 사례 A, 김성경, 2012에서 재인용)

선족 친척이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든지,<sup>8)</sup> 마을에 조선족 보파리 장사가 왔다거나,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장사를 다니는 것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더 나아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등 신체를 통해 감각하면서 북한 주민은 자신의 생활세계를 경계지역이라는 이들만의 특수한 일상의 '장소'로 지각하게 한다.

함경북도 출신은 A 씨는 두만강 강변에서 조선족과 계속적인 교류를 하다가 아버지와와의 불화로 찾기에 월경을 한 사례인데, 경계지역 출신이 탈북자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경계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자원과 연계해서 설명한다. 경계지역을 일상의 생활세계로 감각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탈북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 강가예요. 황해도나 강원도에서 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오려고 생각도 안하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혹시나 함경북도 쪽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올 생각을 하지. **강 쪽 사람들은 빠삭하지요. 맨날 넘어 다니고 그러는데 뭐. 다 알아요.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알지 않겠어요?**(사례 A씨 인터뷰)”

A씨가 말한 것처럼 Z씨의 경우에는 함경남도에서 살 때는 강을 건너는 것을 염두도 못 내다가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주한 이후에 장사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을 익숙하게 인지하게 되면서 월경을 한 사례이다.

“함주(함경남도)에서 어머니랑 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사망되고, 언니가 청진(함경북도)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러 갔어요. 가서 낙지 여기서는 오징어라고 하는데 그걸 떼다가 무산의 아는 언니한테 넘기고 그런 걸 했는데, 그 언니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일 보다가, 언니까지 사망되니까 그 언니가 가자고 하더라고요(사례 Z씨 인터뷰).”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쪽 경계지역의 조선족과 그만큼 많은 교류가 있었고, 경계지역 사람들과 장사를 하였던 타지역 출신 Z씨까지도 빠르게 경계지역

8) 함경북도 청진 출신 인터뷰 사례 C씨는 그녀의 어머니가 조선족인 까닭에 어렸을 때부터 조선족 친척들이 자주 방문했던 경험이 있다. 이때부터 중국 친척들이 가져다주는 중국 물건을 썼고, 경제위기가 나자 조선족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월경을 하였다(인터뷰 사례 C, 김성경, 2012에서 재인용).

만의 특징을 감각하게 한다. 경계지역을 하나의 생활 세계로 감각하기 시작하면 강을 넘는다는 것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기 보다는 자신들의 생활 세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된다.

참여관찰 사례 J씨의 경우는 두만강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북한을 떠날 때까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였다. J씨의 남편은 한번 나가면 한 달씩 소식이 없다가 중국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물품 등을 사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J씨는 북에서 지낼 때 ‘중기’라고 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모두다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을 만큼 유복하게 지냈다.

“여기서 보면 저기. 중국이 저기 정도 밖에 안되요. 저기 불빛 보이는 곳 만큼이요(약 3~40 미터 정도의 거리를 가리키며)그렇게 가까워요. 여기는 전기도 없어서 깜깜하지만 저쪽 저렇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중국이 잘살기 시작하면서 그쪽은 하루하루 변하는 게 보였어요... 거기서 뭐라도 있으면 폭죽이 터지고 그러는데, 다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들 다 두만강변에 나가서 그 폭죽 보고 좋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살았지요(참여관찰 사례 J씨, 전언).”

J씨가 생활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머나먼 타국이 아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이다. 게다가 가까운 친지가 살고 있고, 남편이 일상에서 방문하는 공간이다. J씨는 중국 조선족에게 시집을 가서 연길에 정착한 여동생이 음식이며 기타 생활용품을 보내주기도 해서 이미 강 너머 공간에 대한 친밀감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온 이후에도 중국에서 동생이 보내주는 고춧가루며 져치(말린 향채가루) 등으로 식생활을 하고 있다. 익숙한 풍경, 음식(맛), 소리, 날씨, 촉감 등이 감각하는 공간을 구성하게 되는데, J씨의 경우도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친밀하게 감각하고 있다. J씨의 생활세계는 그 만큼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강 너머는 다양한 물건, 음식, 냄새, 색감, 소문 등으로 감각되는 세계의 일부였다.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악화되자 아이와 함께 중국 쪽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계획을 비교적 쉽게 세울 수 있었다.<sup>9)</sup>

9) J씨가 중국으로 이주할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은 남한으로의 이주였다. 남편과의 불화로 중국으로 이주한 이후 남편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이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기는 하였지만 친정어머니와 친정 식구들이 남편과의 재결합을 반대하였고 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중국에 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계지역이라는 문화적 배경이나 자원과 거리가 있었던 사례들의 이주의 경험은 감각되는 경계지역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사례 V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에 남한 쪽 친척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월경을 하였다. 경계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고 하였다.

“일단 중국 쪽으로 나가려면 두만강 강가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군대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가 있었어. 그런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강가에 그냥 앉아 있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내가 군복을 입고 그쪽에 앉아 있으니깐 경비대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잡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잡혔는데, 그때 수용소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중략...] 거기서 도망치고 나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밤에 강을 넘었지(사례 V씨 인터뷰).”

중국으로 넘어온 V씨는 중국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남한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부유했던 친척의 도움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남한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V씨는 중국에 머무르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V씨에게는 북한에 거주하거나 그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남한으로의 이주만을 고려하였다. 북·중 경계지역이 낯설었던 V씨에게 있어서 강을 넘는다는 것은 곧 남한으로의 이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경계지역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음을 알 수 있다.

## 6. 젠더화된 북·중 경계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또 다른 특징은 약 70%가 넘는 여성의 비율이다. 아래 표에서 설명하듯이 탈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1948-98)에는 여성 탈북자의 비율은 12.2%에 머물렀다.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 군인이나 정부 관료였고, 이와 같은 성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대량 탈북 시기까지 지속되었다.<sup>10)</sup> 하지만 98년을 기점으로 탈북 여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

10)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 내 사정 등으로 인해 탈북자의 수는 고정적이지 않지만 최근의 탈북자의 수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눈에 띄게 급감하였다고 한다(인권활동가 L씨 인터뷰).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과 중국이 함께 작업한 국경지대 철책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북한주민이 불법적으로 강을 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북한 정부가 비공식적인 월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북한주민이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허가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

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 과반수를 넘긴 이후 최근 수년간 70%를 훌쩍 넘겼다. 이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젠더화되었고, 이들이 처음으로 정주하는 공간인 북·중 경계지역 또한 젠더화된 관계의 공간/장소 틀 안에서 재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대다수의 탈북자가 여성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경제적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 요소들이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공간 내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표 2〉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여성비율(통일부 자료)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명)	831	565	509	473	626	424	514	571	606	662	589	798	7,321
여(명)	116	481	632	809	1,272	958	1,512	1,980	2,195	2,252	1,812	1,908	16,247
합계(명)	947	1,046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23,568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69%

공간이 경제적 흐름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것이 근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 경제적 흐름에는 젠더적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공간/장소의 구성에서 젠더는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공간/장소는 특정한 젠더의 문화적 구성과 젠더 관계의 장이다(Massey, 1999: 177). 구성된 공간과 장소는 젠더가 사회 내에서 구축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공간과 장소는 그 곳의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에 따라 각 행위주체들에 의해 다르게 감각되거나 경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한 북·중 경계지역이 경제적 흐름과 동시에 젠더적 관계들에 의해서 '장소화'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장소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초국적 민족 경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 젠더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임을 밝히겠다.

북한주민의 북·중 경계지역 내 이주는 중국 측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각 지역의 거주민 이동을 정책적으로 제한하였고 이 때문에 97%의 조선족이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권태환·박광성, 2007: 538).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주하였던 조선족은 그 만큼 북한쪽의 주민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남한과 중국에 있는 많은 수의 탈북자가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전해오기도 하고, 당국의 강화된 통제 등으로 무작정 월경하기 보다는 친지의 송금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연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조선족과 한국인의 이동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2001년에 20여만 명이었던 남한 이주 조선족의 수는 2010년에는 약 43만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고, 2011년 기준으로 약 49만여 명의 조선족이 남한 사회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족이 남한으로 경제이주를 떠난 후 그 빈자리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로 이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조선족의 남한이주는 글로벌 경제이주의 특징인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의 성격을 보여준다. 남한 사회의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남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사도우미, 보모, 간병인등의 수요 증가와 여성의 결혼 기피로 인한 결혼 이주자 증가 등의 이유로 남성 조선족에 비해 더 많은 여성 조선족이 남한으로 이주를 하였다(이혜경 외, 2006: 259; Sassen, 1991).<sup>11)</sup>

남한으로 이주한 여성의 자리를 메운 것은 북한에서 이주해온 북한여성이었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소한 10만에서 많게는 30만 정도까지 중국내 탈북자를 예상했을 때 이들 중 과반수가 넘는 북한 여성이 남한으로 떠난 조선족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여성들이 기피하는 ‘여성’의 직업을 조선족 여성이 채웠다면, 그 빈자리를 더 값싸고 어떤 부당한 대우도 감당할 수 있는 불법적 지위에 있는 여성, 즉 북한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내의 불평등의 구조가 작동하는 “재생산(노동)의 국제분업”이 북한여성의 이주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Sassen, 1991; 이혜경 외, 2006).

하지만 조선족 여성의 빈자리가 단순히 북한여성의 월경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단순화하기에는 중국 쪽으로 이주한 북한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월등히 많다. 게다가 여성으로 겪게 되는 위협과 고초를 감안할 경우 많은 수의 북한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월경을 한 이유를 단순히 조선족 여성의 빈자리로만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다. 감각하는 장소로 북·중 경계지역과 연결하여 북한여성의 월경을 분석하자면 북한 여성의 장소와 장소감각은 과정(processes)과 흐름(flow)으로 변화하며 경계지역을 가로지르며 더욱더 확장되어 배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경제의 위기는 많은 여성들을 장마당을 중심으로 밀수와 장사 등의

11) 이혜경 외(2006)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주의 여성화가 뚜렷하게 들어나지 않는 반면에 조선족의 경우에는 경제이주자의 48%가 여성이고 여기에 결혼이주자를 합하게 되면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2006: 259-260).

비공식적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위치 시켰다면, 남성들은 여전히 북한 당국에서 정해진 직장에 몸담고 있거나 무기력하게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조정아 외, 2010: 247-297). 과거의 북·중 경계지역의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직접 월경을 하여 경계지역을 ‘감각’ 하기 보다는 월경의 경험이 있는 남편과 아버지, 혹은 조선족 친척의 방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각’하였다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공적인 영역에 주로 종사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여성이 월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장소와 장소 감각 또한 북·중 경계지역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경계지역에 정주해온 북한여성은 국경너머의 조선족 커뮤니티와 친인척 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해왔던 사회적 자원과 신체적으로 감각된 경계지역의 친밀감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국경을 넘어 이주하여 정착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중국내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가, 식량을 구한다거나, 장사 밀전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적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경계지역으로 묶여있었던 중국 측 조선족 커뮤니티와 북한 주민들은 “강을 두고 왕래하는 이웃마을과 같았기 때문에 국경선을 넘는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국가인권위원회, 2009: 69)”는데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여성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었던 북한의 사정상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월경을 결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웃’에 가듯이 단기적 월경을 한 북한여성들에게 중국 쪽 경계지역의 상황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공식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비공식적 경제영역에 종사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감당해야만 하거나, 공안을 피해 시골 마을에 숨어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북한 여성에게 장소 감각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들)은 같은 불법적 신분인 북한 남성보다도 더 협소하고 불평등한 젠더적 성격을 띤다. 북한 남성이 도시 혹은 농촌의 최하위 노동자 계층이나 다양한 초국적 공간(들)에서 장소 감각을 구축하면서 정주하게 된다면, 북한 여성의 경우 ‘여성’이면서 ‘불법적 신분’으로도 정주가 가능한 특정한 공간(들)에 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여성들의 이주 사례는 농촌지역에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하여 가부장제에 봉사하거나 도시에서 식당, 마사지 숭, 술집 등에서 (유사)성노동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 농촌지역에 정착한 북한여성들은 돈을 벌러 한국이나 대도시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을 대신해서 가부장제내의 ‘어머니’, ‘아내’, ‘며느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가부장제와 글로벌 경제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2)</sup>

“우리 오빠야가 글썄 결혼을 못했던 말입니다. 요즘 시골에서 농사짓겠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나이가 사십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턱 일어나보니까 여자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엾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살라고 하고 우리 오빠야랑 살았습니다. 한 일 년은 넘게 살았던 말입니다….(첫 번째 북한 여성이 도망가고) 여자가 있다가 혼자 사니까 오빠야가 또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북한 여자 있다고 해서 돈을 좀 내고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돈으로 2000원 줬단 말입니다(조선족 K씨 인터뷰).”

농촌에서 농사일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족을 꾸려가는 가부장제의 여성의 역할을 북한여성이 수행하고 있고, 이는 쇠락해가는 북·중 경계지역 내 농촌지역이 유지되는데 북한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곳에서 북한여성은 ‘출산’, ‘가사노동’, ‘농사’, ‘부모공양’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하지만 이들이 가부장제의 불평등한 관계(남편 혹은 시부모)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들의 불법적 신분에서 기인하는데, 수차례의 월경이나 북송을 경험한 여성일 경우 안정적인 정주 공간을 찾게 되고, 농촌마을은 도시와 떨어져 있고 마을 공동체가 발달되어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수의 북한여성이 인신매매를 통해 농촌지역에 결혼이주자로 팔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폭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권 유린이 발생하기도 한다(이화진, 2011; 이금순, 2006). 즉 브로커들에게 매매되는 북한여성들은 “중국사회에서 최하위의 계층으로 매매되고 거래되는 성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조정아 외, 2010: 341).

북한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차츰 의미화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인터뷰 사례 K에서 잘 들어나는데, K씨는 97년도부터 월경을 하기 시작해서 수차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었고, 그러던 차에 2004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연변지역의 농촌마을에 정착을 하게 된다.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면서도 불법적인 신분 때문에 불

12) 북한 소식을 전하는 <임진강>에서는 중국 농촌지역에 정착한 북한여성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마을은 조선녀자들이 오기 전에는 거의 보톨이와 로인들 세상이었다. 개혁개방을 맞으면서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갔다. 처녀들은 물론 일할만한 여자들마저 속속 떠나버렸다. 결국 마을에 남은 것은 찾는 데가 없는 로인들과 미혼 또는 안해가 떠난 남자들- 즉 보톨이들 뿐이었다…..바로 이론 곳에 조선녀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 갔다. 마을의 보톨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얼마 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임진강, 2009: 30).”

안하게 생활하였던 K씨는 차라리 시골에서 결혼해서 정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시골 마을로 결혼 이주를 하였다.

“떠돌이 짓하지 말고 농촌에 시집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지 그랬단 말입니다. [...중략...]처음에는 굶이굶이 돌아서 고랑을 칩 들어가니까 그래도 조선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다 농촌에 가면 문화주택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집이라고 찾아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진 집이란 초가집이지. [...중략...]그렇지만은 웬지 그 집에 발을 칩 들여놓자마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 말입니다. 낯설다 이런 감이 없고 이게 내 집이다 이런 감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적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자고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농촌하고 시내 사람들 이랑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농촌사람들은 정말 무식하던 말입니다. 거기 사람들의 문화정도 지식정도를 놓고 보면 다 소학교도 못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한마디로 내가 코디랄까. 내가 그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다 해줬단 말입니다. 노래방도 데리고 다니고, 내가 연길에서 4-5년을 돌아다녔으니까 도와주고, 서시장 가서 물건도 다 사게 해주고 (사례 K씨 인터뷰).”

북한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은 K씨는 생전 해보지 않은 농사일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마을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sup>13)</sup> 이와 같은 정착경험으로 인해 K씨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그 만큼 정착한 농촌마을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장소로 의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씨가 정착한 농촌마을이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K씨가 현재의 생활을 만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K씨는 북한에 딸을 남겨두고 왔는데, K씨를 대신해서 조선족 남편이 여러 차례 딸을 방문하여 돈이나 필요한 물건 등을 전해주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딸에게 전해준 핸드폰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농촌마을에 정주하면서 조선족 농부의 아내로 사는 것에 불만이 없다고 하였다.

물론 결혼이주 이후에 농촌마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남한

13) 임진강에서는 북한여성이 중국 농촌마을의 부녀회장이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으로 인해 공석이 된 마을 부녀회장의 자리를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한여성인 명희에게 맡긴 사례인데, 북한에서 상당수준의 교육을 받은 명희는 농촌마을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녀의 불법적인 신분에서 불구하고 마을 부녀회의 회장을 맡게 된다는 성공스토리가 주된 내용이다(임진강, 2009: 36-43).

으로의 이주를 감행한 여성들도 상당수에 이른다(최현실, 2011; 이화진, 2011; 국가인권위원회, 2009). 특히 중국인(한족) 농부와 결혼을 한 북한여성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매대혼에 의한 부부관계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도망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W씨의 경우 허베이성으로 팔려가 나이 많은 한족과 결혼생활을 8년간 지속하였는데,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심한 두통에 시달린 사례이다.

“거기 이렇게 족(族)이 다르니까 벌써 위안이 안 붙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소통 제대로 표 달 할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자꾸 지니까**. 내 자체를 비하하고 참고 하다가도 그게 얼마간 쌓이고 쌓이면 원래 머리 아프던 것이 와 머리 아파가지고 물도 못 먹고 막 토하니까 너무 아프면 머리 팡팡 치매 때려보고(사례 W씨 인터뷰).”

반면에 조선족 농촌 마을로 결혼이주를 간 북한여성들은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덜해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족 남성이 조선족이나 북한남성에 비해 가부장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덜해 북한여성들이 남편에게 호의를 가지고 정착하는 경우도 사례연구에서 나타난다(이화진, 2011: 389-391). 인터뷰 사례 M씨의 경우 한족 농부와 결혼하여 정착한 이후 아들도 출산하고 약 7년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예술단에서 활동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고 춤/노래 실력이 있었던 M씨는 끝없는 농사일 때문에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다.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남편은 잘해줬고, 그렇게 착한 사람 없지만, 그래도 평생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낼 생각을 하니 끔찍해서... [중략]... 지금도 남편이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울고 그러는데..(인터뷰 사례 M씨 전언<sup>14)</sup>”

M씨는 강요되는 ‘어머니’의 역할이나 특히 ‘농부의 아내’로 살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결혼이주 북한여성들은 가부장제내의 여성의 역할에 한정되는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때로는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적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응하지 못하여 중국내 도시 혹은 남한으로의 또 다른 이주를 감행하기도 한다.

14) M씨는 인터뷰를 2차례 진행하였다. 위의 전언은 연구자가 2011 8월 J씨 가족과 M씨 그리고 M씨의 아들(5세)과 함께 수영장으로 나들이를 가서 얻은 자료이다. 2011년 11월에 M씨의 아들은 중국의 아버지에게로 보내졌다.

한편 글로벌 경제체제와 초국적 민족 경제의 확장은 중국내 초국적 민족 공간을 구축하였고 이 공간은 북한여성의 경계지역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개방 이후 꾸준히 증가한 한국인의 중국 이주는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50만 여명에 이른다(구지영, 2011: 423-4). 한국인의 중국 이주는 조선족의 도시이주를 추동하는 주요한 원인인데, 1992년 개방이후 한국 기업이 중국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자 한국어에 능통한 조선족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유입에 따라 조선족의 오랜 정착지였던 동북 3성내 농촌에서 벗어나 동북 3성의 도시로 이동과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로 이동, 혹은 한국과 배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해지역의 도시(청도, 위해, 연태)로의 이동하였다(권태환·박광성, 2004: 65).

전경수와 허시유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조선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한국인=고용인·조선족=피고용인’ 혹은 ‘한국인=투자자·조선족=매개자’라는 구도로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한국 기업이라는 서식처에 한국인, 조선족, 한족 커뮤니티가 함께 공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전경수·허시유, 2004: 296-352; 구지영, 2011: 425).<sup>15)</sup>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교류의 대상이 등장하면서 조선족 사회도 빠르게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월경을 한 북한주민 또한 재배열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공간 변형에 따라 함께 이동하고 있다(김성경, 2012).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과 한국인 밀집지역은 북한주민의 이동에 필수조건이 된다. 물론 불법적인 신분인 북한주민은 한국인과 조선족의 경제적 협력 관계의 등가적 존재로 초국적 민족공간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북한주민의 절대적 필요에 의해 민족공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초국적 민족공간 내 가장 낮은 지위의 노동력으로 위치하면서, 조선족이 회피하는 노동 집약적 직종, 돌봄 노동, 혹은 서비스 노동 영역에 종사하면서 조선족이나 한국인의 경제적·생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조선족과 북한인이 오랫동안 대면하고 교류하였던 북·중 경계지역은 지정학적 경계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내 대도

15) 한국인에 모여 사는 연해지역의 도시 중 청도의 경우에는 그 만큼 많은 수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족이 경제이주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의 호적을 청도로 옮기지 않아 정확한 조선족의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청도에 있는 조선족의 인구는 통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호적을 청도로 이전하지 않으면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국인과 조선족 인구수의 비율은 2009년 상황을 따지면 1:4로 계산하면 큰 오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청도시 전인 공안국 대외처 처장, 정강 인터뷰, 위군, 2011: 68 재인용).

시와 연안도시로 확장되었고, 과거와는 상이하게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행위주체가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지위에 따라 민족 내 서열이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국적 민족공간은 과거의 교류와 소통의 경계지역의 성격보다는 민족 내 서열과 착취의 경제 구조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초국적 공간을 경험하는 북한주민 중 북한여성의 경험은 남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남성들은 주로 단순 노무 등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북한 여성들은 유흥업소나 성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이주에 따른 서비스 업종의 수요 증가는 그 만큼 많은 이주여성의 수요를 발생시켰고, 더 큰 문제는 조선족 여성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과 불법적 지위에 놓여 있는 북한여성에게 있어 직업 선택의 폭은 그 만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월경한 북한여성이 성매매 산업에 넘겨진 사례,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해 도시로 도망친 이후 유사 성매매를 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몸을 파는 일’을 하는 북한여성은 탈북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중국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던 여성의 경우 중국인(조선족 혹은 한족)과 결혼 생활을 했거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아이는 중국에서 결혼했어요?...[중략]...아무래도 중국에서 그런 곳(성매매 산업)에서 일한 것 같은데요. 북한 여자들 중에 중국에서 결혼했거나 아니면 애를 낳았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 다 몸 판거예요. 내 하나원에 있을때도 어쩔 그렇게 괜찮고 얼굴도 곱고 그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난 정말 그 애가 그럴꺼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워낙 참해서. 그런데 결혼도 안하고 애도 없고 친척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아니더라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참여관찰 사례 J씨의 전언).”

가난하면서 불법적 신분인 북한 여성들이 중국 쪽 경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듯 글로벌 경제에서 소외된 하류계층의 남성들과 결혼하여 가부장제 내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구축하거나, 초국적 민족 경제의 확장의 일환으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도시로 이주한 조선족들이 만들어낸 초국적 민족 공간 내에서 서비스 산업 특히 유사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북한 여성의 경험과 신체를 통해 감각되는 경계지역은 남성의 경계지역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공간 내에서 북한여성의 위치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 살아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력 있는 남성의 성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만큼 북한여성이 경험하고 신체화하는 경계지역의 장소 감각은 젠더화되어 있고, 북한 여성은 중국과 북한의 사회 내에서 한계 지워진 여성의 자리에 일방적으로 위치되는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여성의 경계지역 장소 감각은 가부장제 관계의 틀이나 성적 대상화된 관계들을 통해 구축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사회관계의 흐름으로 구성된 경계지역에서 그들은 가장 소외된 소수자이며 공간 내 권력관계에서 불법적 이주자와 젠더적 약자라는 이중의 억압에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여성들이 감각하고 신체화하는 경계지역이라는 장소는 불균등하고, 혼란스럽고, 착취구조가 작동하는 불평등한 공간이다. 이와 같은 장소적 특징은 북한여성이 북·중 경계지역에서 삶의 경험과 혼란 등을 통해 특정하게 젠더화된 장소 감각을 구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북한여성이 감각하는 장소로서 북·중 경계지역은 현재의 불평등한 젠더적 관계와 사회·경제적 관계망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processes)으로 존재함을 확인시켜준다.

## 7. 나가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탈냉전 시기에 냉전이 첨예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다층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냉전의 프레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극한의 인권적 상황을 접하는 것은 혼란의 일이 되었고, 요동치는 북한 내부의 상황과 맞물려 강제 복송된 탈북자가 경험한 수용시설의 끔찍함은 북한 정권의 폭압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탈북자가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들어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이주의 과정과 동인을 정치적 이유 혹은 극한의 경제난이라는 단일한 변수로 단순화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는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수가 불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경계지역 중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점,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으로의 재입국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월경이 즉자적이거나 단일한 원인으로 인한 이주가 아닌, 오랫동안 일상에서 구축된 경계지역이라는 공간과 경계지역 정주민의 장소 감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한입국 북한이탈주

민 중 약 70%에 이르는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자들은 북·중 경계지역을 국경이라는 경계로 구분되고 구획화된 공간으로 지각하기 보다는 다양한 교류와 관계로 이루어진 '장소'로 감각하고 있다. 신체화된 세계로서의 북·중 경계지역은 이들에게는 친밀한 생활세계의 일부분이었고, 이 때문에 경제 위기가 가중되자 큰 고민 없이 월경을 감행할 수 있었다.

물론 북·중 경계지역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중심으로 두 개의 근대 국가가 영토를 맞대고 있는 지역임에 분명하다. 정치적으로 공식화된 공간의 구획이 '절대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일상의 차원에서 이곳에 정주하고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생산, 소비, 재배열 되는 '상대적 공간' 혹은 '일상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주민들 사이의 일상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구축되는 일상의 공간은 국경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의 선을 따라 확장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일상의 공간은 행위주체들이 다양한 경험과 감각을 통해 친밀함과 일상성을 만들어내는 '장소'이다. 특히 행위주체들이 감각하는 장소에서 신체(body) 혹은 신체화(embodiment)의 과정은 중요한데,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것처럼 신체는 행위주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통로이고 역사성과 지역성이 신체화되는 장(場, habitus)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풍경, 냄새, 소리, 사람 관계 등으로 감각되는 장소의 친밀함은 지금까지 적게는 30만여 명에서 많게는 100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을 넘어 중국 측 경계지역으로 이동한 주요한 문화적 배경과 자원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북·중 경계지역이라는 일상의 공간과 장소는 행위주체들에 따라 다르게 감각된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즉 일상의 공간이나 장소가 세계화 시대의 균질화된 공간이 아닌 공간의 다면성을 보여주면서도 행위주체나 미시적 일상의 측면에서의 불평등과 불균형한 공간의 정치학 또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험하고 감각되는 북·중 경계지역은 일상에서 소통과 교류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기능성의 공간인 동시에 그 흐름의 구조에서 소외된 몇몇에게는 불평등, 폭력 그리고 착취가 가능한 공간이 된다. 다시 말해 북·중 경계지역은 북한여성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며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감각하여 친밀함을 구성하는 장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가부장제의 여성 혹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역할만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장소이다.

북·중 경계지역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경험하고 감각되는 장소로 작동하였고 월경한 이후에도 다양한 경험(웰빙, 혼란, 삶의 경험)을 통해 이 지역의 장소성은 계속

적으로 신체화되고 있다. 북한여성의 경험하는 북·중 경계지역과 초기의 조선족과의 커뮤니티라는 문화적 자원과 배경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남한(사람)이라는 또 다른 문화적 자원과 함께 뒤섞여 현재적 북·중 경계지역의 장소성이 (재)구축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한 경제와 조선족의 관계로 인해 재구성되는 북·중 경계지역은 북한여성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다중의 코리안들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재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인과 한국 경제의 관계가 포함되어 확장된 북·중 경계지역은 단순히 지정학적 북·중 경계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중국의 타 도시로 혹은 북한과 남한의 국경을 넘나들며 확장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관계와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국가이자 균질화된 공간으로 이해되어온 북한이 행위주체와 일상의 차원에서 교류와 관계의 흐름을 통해 변화하는 상대적 공간(들)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바로 이 점이 좁게는 북한이탈주민과 북·중 경계지역의 관계성을 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확인되는 지점이고, 넓게는 정치적·이념적으로 이분법의 논리로 단순화하여 이해해 온 북한을 다층적 공간(들)의 측면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만 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

## 참고문헌

- 강주원. 2012. “중조 국경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북한사람, 북한외교, 조선족, 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논문.
- 구지영. 2011.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칭다오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 40(7): 421-457.
- 국가인권위원회. 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권태환·박광성. 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61-89.
- 김귀옥 외. 2000.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대.
- 김성경. 2012.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22(2): 114-158.

- 김수암. 2006. “해의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Online-Series』 06-05. 통일연구원.
- 김왕배. 2011.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 김현경. 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한국 학술정보.
- 나오키, 요시하라. 2008. 『모빌리티와 장소: 글로벌화와 도시공간의 전환』. 이상봉·신나경 역. 심산.
- 데폰브, 뱅상. 1990. 『동일자와 타자: 현대 프랑스 철학(1933-1978)』. 인간사랑.
-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리흥국·김호남·장희망. 2010. 『중국조선족문화 및 그 특색에 관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멜로로-폰티. 2002.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 슈뢰르, 마르쿠스. 2010.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배정희 역. 에코리브스.
- 위균. 2011. “청도 코리아타운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7: 47-76.
-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집문당.
- 이금순. 2006. “북한 여성의 이주혼인과 인권문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이옥희. 2011.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207-241.
- 이화진. 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평화연구』 가을호: 367-404.
- 임진강 편집위원회. 2009. 『임진강』. 6호. 임진강출판사.
- 자너, 리차드 M. 1993. 『신체의 현상학: 실존에 바탕을 둔 현상학』. 인간사랑.
- 전경수·허시유. 2004. “재중 한국계 기업의 본지인·조선족·주재원: 생태학적 관점에서.” 백권호 외. 『중국내 한국계 외자기업의 경영 현지화』. 지식마당.
- 정병호 외. 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오름.
- 전우택 외. 2010. 『통일 실험, 그 7년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 한울.
- 유해숙. 2009. “새터민의 무력감의 원인과 임파워먼트 전략.” 『동향과 전망』 77: 352-388.
- 정주신. 2011. 『탈북자 문제의 인식 1&2』. 프리마.
- 조정아 외. 2008.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 \_\_\_\_\_. 2010.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최현실. 2011.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21(1): 161-204.

테브나즈, 피에르. 2011.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 폰티까지』. 그린비.

하비, 데이비드. 2005/2008.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공간들』. 임동근 외역. 문화과학.

Agnew, John. 2011. “Space and Place.” in J.Agnew and D.Livingstone(eds.)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London: Sage.

Aldrich, R. 2011. “An Examination of China’s Treatment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North Korean Review* 7(1): 36-48

Balibar, E. 1998. “The Borders of Europe.” in P.Cheah and B.Robbins(eds)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trans.J.Swenson. London an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216-33.

Baud, M., and Van Schendel, W. 1997. “Towards a Comparative History of Borderlands.” *Journal of World History* 8(2): 211-242.

Brednikova, O., and Voronkov,V. 2000. “Border and Social Space Restructuring.” [www.indepsocres.spb.ru/bredvv\\_e.htm/](http://www.indepsocres.spb.ru/bredvv_e.htm/).

Butler, J. 1988 “Performative Act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519-531.

Casey, E. 1993. *Getting Back Into Pla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Casey, E. 1997. *The Fate of Pl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The Fate of Pl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oo, Hae Yeon. 2006.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Society* 20(5): 576-604.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LIVES FOR SALE*.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Harvey, D. 1985. “The Geopolitics of Capitalism.” in Derek Gregory/John Urry.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Routledge.

\_\_\_\_\_. 1996a. *Hybrid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_\_\_\_\_. 1996b.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London: Blackwell.

Horstmann, H. 2002. “Incorporation and Resistance: Borderlands,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Social Changes in South Asia.” unpublished presented paper.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London: Blackwell.
- Massey, D. 1991. "A Global Sense of Place." *Marxism Today*, June. [http://www.amielandmelburn.org.uk/collections/mt/index\\_frame.htm](http://www.amielandmelburn.org.uk/collections/mt/index_frame.htm)
- \_\_\_\_\_. 1994. *Space, Place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99. "Power-Geometries and the Politics of Space-Time." Hettner Lecture 1998. Heidelberg: University of Heidelberg.
- Merleau-Ponty, Z. Maurice. 1962. "The Body in its Sexual Being." in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 Smith, Boston: Routledge.
- Newman, D., and Passi, A. 1998. "Fences and Neighbours in the Postmodern World: Boundary Narratives in Politic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186-207.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kamura, K. 2004. "Not "Divided Places", But "A Living Space": Chinese Women on the Thai-Malaysian Border."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68: 173-191.
- Tuan, Y.-F. 1974.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Vaughan-Williams, N. 2009. *Border Politics: The Limits of Sovereign Powe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Wendle, T., and Rosler, M.(eds). 1999. "Frontiers and Borderlands: the Rise and Relevance of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in *Frontiers and Borderlands: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Munich: Munich.

김성경은 영국 에섹스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북한이탈주민, 이주, 문화산업, 문화이론, 질적연구방법론 등이다.

[2012. 7. 24 접수; 2013. 1. 31 게재확정]

## **North Koreans' Border Crossing and North Korea-China Borderland: 'Sensed Place' and the 'Gendered' Sense of Place**

Sung Kyung Kim  
Sungkongho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ultifaceted relationships between mobility and space in the case of North Koreans' border crossing and the cultural meanings attached to the North Korean-Chinese borderland. Most North Korean bordercrossers originated from within the borderland which in itself allows insight to its composition as a mosaic of everyday spaces rather than a clearly structured and heterogeneous space divided on the basis of national territory.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borderland tend to construct their own sense of place that dissects the borderland with multiple connections and networks. In this process, it has to be argued that the North Korean in the borderland constructs her/his own sense of place through the embodiment of space. That is, North Korean intimately senses borderland space via his/her body which in turn can be understood as an underpinning explanation of mass border crossing and the re-embedding of cultural backgrounds following settlement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land despite the illegal status of North Korean bordercrossers. However, the borderland as 'place' can be sen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gency of the bordercrosser especially as most female North Korean bordercrosser face the double-obstacle of being identified not only as 'illegal migrants' but also as 'women' in the borderland. Therefore, the borderland as a 'place' for North Korean bordercrosser contains multi-layered and gendered spaces that are often unequal, unbalanced, and heterogeneous. To conclude, to explore the multifaceted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n bordercrosser' mobility and the borderland with the framework of 'the sensed place' can help us to recognize the borderland as a cultural resource for North Koreans' mass border crossing and ultimately to suggest the (re)examining of North Korea as constructed through diverse everyday spaces that contain the possibilities of changes and processes as 'place'.

Key words: North Korea-China borderland, Place, Sense of Place, Phenomenology, Gender